

2026 ACTS NEWS



신간소식

- ACTS신학저널 67집
- 기독교 상담의 실제
 - 초보 상담자를 위한 상담의 흐름과 실제
- A Manual Guide for Academic Writings
- 통일한국 오디세이

AIGS MISSION NEWS

- 이한영 교수님 은퇴 감사예배
- 아신대학교 국제교육원 수원성교회
누가의료선교팀 방문진료실시

ZOOM IN ACTS

- 종교문화콘텐츠학과 입학식
- 아신대학교, 2026 신입생 전원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 진행
- 아신대학교 생활관 리모델링 착공
감사예배 드려

신학포럼

- 아신대, 제20차 ACTS 신학포럼 개최
복음과 다중심적 선교

ACTS NEWS

2026년 Vol.67

발행일 2026년 8월 25일

발행인 정흥열

발행처 아신대학교 기획처(Tel. 031-770-7802)

주소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디자인 이은컴퍼니(Tel. 02-2231-6402)



Content

- 03 총장 메시지
- 04 ZOOM IN ACTS
- 14 AIGS MISSION NEWS
- 16 한국어학당
- 18 신간소식
- 19 ACTS 후원소식
- 20 ENGLISH SUMMARY
- 22 학부 및 대학원

신선한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보내실 분은 이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이메일 yjpark@acts.ac.kr
홈페이지 www.acts.ac.kr



아신대학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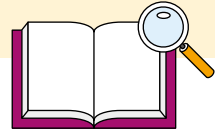


총장 메시지

President's Message

2026학년도 1학기에 신설된 아신대학교 종교문화콘텐츠학과는

복음과 K-Culture 및 K-Welfare를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글로벌 기독교 리더를 양성하는 새로운 비전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종교문화콘텐츠학과 신설 의미와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ACTS NEWS 가을호에서는 종교문화콘텐츠학과 종강예배 설교문으로 권두언을 곁들입니다.



본문: 단1,8-9.
하나님이 내 삶을 판단하신다.
God judges my life.

안녕하세요?

지난 3월부터 오늘 6월말까지 공부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1학기를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해요.

공부도 하고 또 시간을 내어 일도 하는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자기 자신을 잘 지켜 나가면서 건강도 지키고 안전한 생활도 꼭 할 수 있도록 조심하고 열심히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강예배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 이름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화배우나 가수나 학자나 남자이름으로 자주 등장하는 영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원래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입니다. 단은 “판단하다” 혹은 “심판하다”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란 이름을 가진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을 소개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인물인가?

그는 유다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점령하면서 유대인 중 똑똑한 청년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유학을 시킨 후 바벨론의 관리로 키우려 했어요. 그렇게 보면 다니엘은 모든 유학생들의 원조였던 인물입니다. 마치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으로 유학 와서 공부하던 시절에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먹고 마셔야만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만큼은 안 먹겠다고 자신의 원칙을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거였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가 왕에게 전달되었어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버티는 다니엘을 데려다가 그럼 시험해 보자 열흘 동안 왕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지 않고 다니엘이 택한 채식만 먹고 지난 후에 몸의 상태를 확인해 보자. 그러자 다니엘이 채식만 먹었는데 훨씬 건강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다니엘은 채식주의자들의 원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와 총명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공부도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분명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던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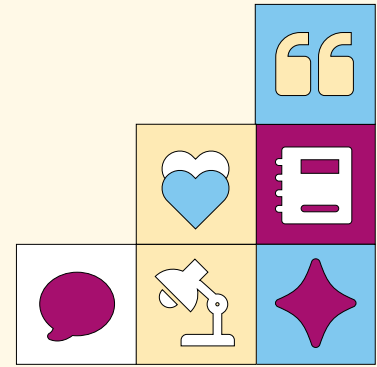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니엘이라는 성경 속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이 거부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각자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집과 모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물론 자유도 주지만 동시에 불안도 준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나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아무도 날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불안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의 원칙을 반드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는 말로도 연결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절대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동시에 보호해 주신다는 생각은 나로 하여금 “내 맘대로 막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자유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라는 불안한 생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다니엘 즉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기고 대한민국 생활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된다면 몸만 상하고 시간만 버리고 좋지 않은 경험만 하고 실패할 수 있는 불행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학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는 학생들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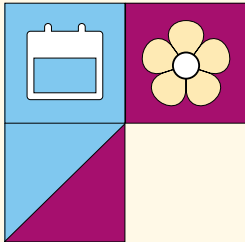
아신대학교 총장 정 홍 열

ZOOM IN ACTS

사람을 세우고 세계를 품는 대학,
아신대학교



01



종교문화콘텐츠학과 입학식

아신대학교 종교문화콘텐츠학과가 2026년 3월 6일 오전 11시 교내 강당에서 첫 입학식을 열었다. 한국어 과정과 영어과정 신입생 147명이 참석했으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해 국제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종교문화콘텐츠학과는 2026학년도 1학기에 신설된 학과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문화(K-Culture)와 한국종교(K-Religion), 한국형 돌봄(K-Welfare)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공과정은 세 축으로 구성된다. K-Religion 영역에서는 기독교의 본질과 종교 간 대화, 한국 사회 속 종교와 문화를 탐구한다. K-Culture 영역에서는 K-pop과 드라마, 미디어 등 대중문화 현상을 이론과 실습으로 배우며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을 기른다. K-Welfare 영역에서는 돌봄과 복지에 관한 실질적 이해와 기술을 익힌다. 수업은 대면 강의와 플립러닝 기반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학식은 손신 교학처장의 기도로 시작됐다. 정홍열 총장은 “Who are you to u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뒤, 축사를 통해 “새로운 학업의 기회가 열렸다”며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종교문화콘텐츠학과는 기독교적 가치에 기초해 타종교와의 대화와 상호 이해를 추구하며, 신앙과 학문, 문화와 돌봄을 융합한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02

아신대학교, 2026 신입생 전원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 진행

아신대학교는 2026학년도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모든 신입생이 글로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우리가 낯선 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해외문화탐방은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타문화를 이해하고, 선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며, 공동체성을 배우는 교육 과정으로 기획되었다.

학생들은 2026학년도 1학기 동안 사전 교육과 팀별 활동을 통해 탐방을 준비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문화지능(CQ, Cultural Intelligence)을 함양하고, 선교를 단순한 지리적 확장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며 자신의 삶의 소명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동기들과 함께 탐방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책임의 가치를 배우며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

특히 학생들은 탐방 기간 동안 ‘관광객이 아닌 관찰자의 렌즈를 장착하라’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현지의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익숙한 시선에서 벗어나 낯선 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단순히 경험하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회를 깊이 이해하는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해외문화탐방의 생생한 현장은 아신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한 다양한 문화와 팀별 활동, 현지에서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해외문화탐방의 교육적 의미와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신대학교는 앞으로도 공식 SNS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과 캠퍼스 소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A tour of foreign cultures

03

2026 봄학기 신앙수련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진행

2026 Spring Semester Faith Retreat



아신대학교는 2026학년도 봄학기 신앙수련회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11-12)라는 주제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아신대학교에서 진행했다.

이번 신앙수련회 예배는 광주벤엘교회 리종빈 목사의 말씀으로 진행됐다. 총 5번의 예배를 통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역시귀본(逆時歸本)”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동아리·자치기구·전학대 및 총학생회 소개, 각 학부 모임 및 지도교수와 의 대화, ‘함께 지어저가는 ACTS’, 총장님과의 만남, 기도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신대학교의 신앙수련회는 매 학기 개강과 함께 열리는 행사로,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다. 학부와 대학원, AIGS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예배와 특강, 학부별 모임, 기도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의 하나 됨을 경험하며, 아신대학교의 신앙과 교육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04

아신대학교 생활관 리모델링 착공 감사예배 드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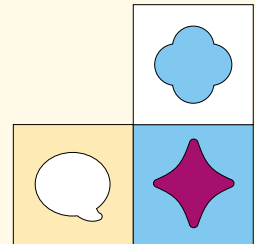
아신대학교(Acts)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생활관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기존 내부 철거 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이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아신대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감사 예배’가 지난 7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여자생활관 1층에서 교직원과 학교 관계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거행되었다.

이번 생활관 리모델링은 단순한 건물의 개보수를 넘어, 아신대가 걸어온 사명의 길을 재확인하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할 터전을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생활관 리모델링은 학교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였으며, 이번 착공은 오랜 시간 변함없는 기도와 물질의 섬김으로 헌신해 온 수많은 동역자들과 후원자들의 눈물이 맺은 소중한 열매이다.

이날 정홍열 총장은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 총장은 “황폐해진 성읍을 보고 왕에게 나아가 기도를 구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위에서 이 생활관을 온전히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공간이 단순히 건물의 변화를 넘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처소가 될 것”을 선포하며 참석자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다.

감사예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생활관은 완공 후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게 영성에 집중할 수 있는 현대적인 거주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기도로 시작된 이 거룩한 불씨가 완공의 그날까지 은혜롭게 이어져 아신대의 새로운 역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Thanksgiving Service



05

‘ACTS 후원의 밤’ 개최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는 5월 26일(화) ‘ACTS 후원의 밤’을 마련하고 후원자들과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학교와 외국인 유학생들을 후원하며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교법인 이장호 이사장, 아신대학교 정홍열 총장을 비롯하여 이재훈 이사(온누리교회 담임), 이근호 이사(순복음 대구교회 담임), 이경희 이사(수원성교회 담임) 등 이사진과 학부와 대학원의 많은 동문들 등 아신대학교에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었다.

본교 동문 이미나 교수와 이영찬 졸업생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후원의 밤은 아신대학교와 외국인 유학생들을 마음에 품고 섬겨주시는 조중현 장로의 특별 찬양, 고광석 목사의 성경암송, 국제교육원 학생들과 학부 윤현우 학생의 찬양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특히 금번 후원의 밤에는 현재 국제교육원에 재학중인 파는 학생의 간증과 신약 분과 학생으로 와서 현재는 교수로 섬기는 Jeevan 교수의 딸 조예 학생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ACTS 후원의 밤 행사는 아신대학교를 사랑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후원자들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ACTS Fundraising Night’ Held



ACTS 후원의 밤을 통해 전해주시는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고은경, 김기택, 김동찬, 김미, 김승환, 김은자, 김재희, 김주영, 김평래, 김표현, 김혁, 남양규, 고광석, 박기일, 박성희, 박우영, 백상미례, 박현희, 신철우, 이소윤, 안덕자, 유기석, 이근호, 이기태, 이명석, 이미경, 이용성, 이은경, 이재욱, 이재훈, 이정숙, 이한영, 정경아, 정성국, 정순자, 정은옥, 정정애, 정준희, 정홍열, 정효숙, 조성은(이영찬), 진삼하, 최훈학, 최태형, 하예람

교회 및 단체: 순복음대구교회(이근호), 썸스151(이정훈), 주엔앤비랩, 엘인터네셔널(정수영), 영락교회(김운성), 예림가설(조중현), 청지기공동체PTA, 풍년그린텍(유이상),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95학번 동기회(이세일,주경훈,왕남수)



06

아신대학교-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대학 연계 프로그램 및 학점인정형 과목 운동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

Signing of an MOU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여미경)은 2026년 5월 11일, 양평 지역 학생들에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중심의 대학 연계 과목 경험을 제공하고, 대학 연계 교육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전공 연계 과목을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배움을 보다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복지학, 디지털시 등 사회문화적 수요가 높고 미래세대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교육 자원을 활용한 고도화된 학습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평 관내 학생 대상 대학 연계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학점인정형 과목 발굴 및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 협력 ▲아신대학교의 전공·인적·교육 자원을 활용한 진로·전공 탐색 지원 ▲지역사회 교육 플랫폼과 대학의 전문성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접하기 어려운 대학 연계 영역을 지역 안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넘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실제 대학 전공 수준의 내용과 연결해 보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지리적 으로 가까운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를 안정적으로 넓히고, 향후 학점인정형 과목 운영 가능성까지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양평교육지원청은 앞으로 지역 학생들이 양평 안에서 더 넓고 깊은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학 연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대학이 함께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교육협력 모델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여미경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지역 안에서 보다 깊이 있게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뜻깊은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전공 연계 과목을 적극 발굴하여 양평 학생의 배움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홍열 총장은 “대학의 전문성과 교육 자원이 학생들의 성장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신대학교와 양평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대학 연계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7

정홍열 총장,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 제61대 회장 취임

아신대학교 정홍열 총장이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의 제61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2026년 5월 22일 아신대학교에서 전국신학대학 협의회와 한국신학교육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정기 총회에서 정 총장의 취임식이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송용원 사무총장(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문을 열었다. 이어 김강 부회장(강서대학교 총장)의 기도와 강성영 제60대 회장(한신대학교 총장)의 설교가 진행되었다. 이후 유재경 부회장(영남신학대학교 총장)의 축도와 송용원 사무총장의 광고를 끝으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로 진행된 61차 총회에서는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임원선거에 이어 정홍열 신임 회장의 취임사와 신규임원 인사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정홍열 총장은 취임사에서 “전국신학대학협의회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신학 교육 및 연구의 중심 기관중 하나”라며 “이토록 위상 높은 협의회 회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하게 되어 떨리는 마음이 앞서지만 현재 한국 신학과 신학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제61대 회장으로 추대된 정홍열 총장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거쳐 동 대학원 일반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했으며, 독일 에어랑겐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8년 아신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래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한국조직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21년부터 아신대학교 제11대 및 제12대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Inauguration as the 61st President of KAATS

08

2026년 아신대학교 미국 뉴멕시코 원주민선교

- 빼앗긴 자기 땅에 주변인으로 바호 원주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화합과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다



2026년 6월 29일 미국 뉴멕시코
나바호 앨버커키 쿠바 선교센터
(Christian Vision Academy)



2026년 7월 3일 미국 뉴멕시코
앨버커키 쿠바 가정방문 전도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 단기선교팀은 2026년 6월 27일부터 7월 11일 까지 미국 뉴멕시코주 나바호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단기선교를 진행했다. 나바호 부족은 미국 내 가장 큰 원주민 부족으로, 현재 인디언 보호구역 내 Navajo Nation 자치국을 이루며 살고 있다. 나바호 부족들은 한국 전쟁 당시 8백여 명의 나바호 군인들이 참전했던 용맹한 부족이었으나, 현재 지리적 고립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높은 실업률과 식수·전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백인들에게 내몰린 역사적 상처로 인해 마약 문제와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신대 선교팀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 활동을 진행했다. 원주민 가정을 방문하여 중보기도와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태권도 공연과 워십 댄스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였다.

아신대학교의 나바호 선교는 2022년, 모 후원자의 지정 헌금으로 시작 되었다. 이후 매해 이어져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선교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의 항공료와 선교 경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2024년 단기선교 중에는 한 학생이 갑작스러운 고열로 심정지 상황까지 가는 위급한 일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회복된 기적 같은 일도 있었다.

아신대학교는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학교이다. 선교에 참여하는 젊은 청년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2022년부터 이어져 온 이러한 단기선교는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품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교가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가 계속되기를 기대해본다.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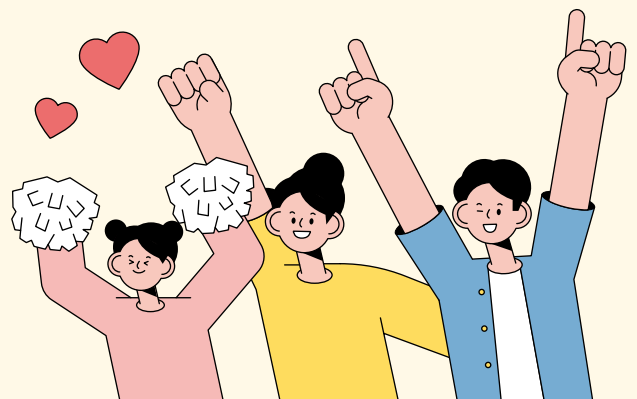
2026 ACTS 체육대회 “READY, GET ACTS-ion” 개최

아신대학교는 2026년 5월 14일 양평군체육센터에서 학부와 AIGS, 학생과 교수진이 함께하는 2026 ACTS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READY, GET ACTS-ion!”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뛰고 응원하며 공동체의 하나 됨을 경험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체육대회는 학과별 경기와 응원전을 비롯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선의의 경쟁 속에서 협동과 배려를 배우고, 교수와 학생,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세대와 전공을 넘어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농구 토너먼트와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또한 참가자들을 위한 경품 추첨과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어 즐거움을 더했으며, 각 학과의 특색을 살린 응원과 열정적인 경기 모습은 아신대학교 공동체의 활기와 결속력을 보여 주었다. 행사는 학생자치기구와 운영진의 협력 속에서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으며, 참가자들은 함께 땀 흘리고 응원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소속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신대학교 체육대회는 매년 학생과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공동체 행사로, 건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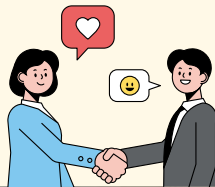
아신대, 제20차 ACTS 신학포럼 개최 복음과 다중심적 선교

아신대학교 부설 ACTS 신학연구소(소장 조휘 박사)는 지난 4월 20일(월) 본교 대강당에서 제20차 ACTS 신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신학 포럼은 선교 생태계 변화에 따른 현지 중심의 동반자적 선교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대안과 토론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강대홍 박사(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가 “복음과 다중심적 선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서구 선교 패러다임인 크리스텐덤 선교는 특정 기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교 방법임을 지적하였다. 파송교회와 선교사는 외부자로서 선교 지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부자로서의 시각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송지 중심이 아닌 현지를 중심으로 하는 다중심 동반자적 선교를 해야 함을 주장했다. 선교사는 현지인들의 생각과 사역을 존중해야 하고 산모가 아닌 산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폴리센트릭 시대의 동반자 선교 방법을 제안했다. 동반자 선교는 우정을 기반으로 하며 선교사와 현지교회 사역자의 동등한 관계를 의미한다. 비서구권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지역의 교회들의 선교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세계 선교 지형이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한국 교회의 선교 방식도 변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발제 직후 두 명의 패널 토론자가 피드백을 주었다. 김한성 교수(선교학)는 선교연구와 교육은 서구교회에 크게 의존적이기에 다수 세계 교회가 선교 연구와 교육에 관심 가져야 함을 지적했다. 이어 전희준 교수(역사신학)는 도시 중심으로 선교사가 밀집 되는 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질문했다. 포럼에 참여한 자 중에는 이주민을 향한 선교와 현지에 필요한 사역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조휘 교수(ACTS 신학연구소장)는 동반자적 선교에서 존중, 인정, 신뢰, 주도권 이양을 중요한 네가지 개념으로 언급하였다. 파송지 중심 서구 선교 패러다임인 크리스텐덤 선교가 아닌 현지 중심의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동반자 선교인 다중심적 선교를 위해 오늘의 교회와 신학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ACTS 신학포럼은 아신대학교 신학연구소가 매 학기마다 진행하는 포럼으로 신학적 이슈와 해석은 물론 다양한 신학적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다. 제21차 신학포럼은 올해 10월 양평 아신대학교 강당에서 “복음과 총체적 영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베트남 친구들”유학원 장학금 2,000,000원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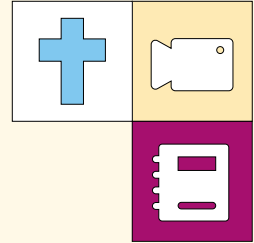
“베트남 친구들” 유학원이 종교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2,000,000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종교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기탁식은 총장과 담당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베트남 친구들” 유학원은 한국에서 학업 중인 베트남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유학생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학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학과 측은 유학생들을 위한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업 의욕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교문화콘텐츠학과는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들과 함께 글로벌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번 기탁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육 교류와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학과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신대학교 개교 제52주년 기념예배 거행... “인생의 ‘갈 때’와 ‘갈 데’를 하나님께 맡기라”

아신대학교가 개교 52주년을 맞아 지난 5월 7일 교내 강당에서 기념예배를 거행하였다. 이번 기념예배는 재학생과 교직원, 이사진 및 외부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신대만의 선교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엄숙하면서도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예배는 정홍열 총장의 사회와 학부 총동문회장인 김승준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AIGS(국제교육원) 학생들의 특별찬송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은 아신대학교가 가진 글로벌 선교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설교를 맡은 오륜교회 주경훈 담임목사(신학 95)는 모교의 개교기념일을 맞아 ‘갈대상자를 띄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주 목사는 “인생의 ‘갈 때’와 ‘갈 데’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 삶 속에서, 요게벳의 갈대상자는 포기가 아닌 전적인 내어 맡김의 상징”이라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록 세상의 눈에는 작고 시시해 보일지라도 믿음을 담아 최선의 갈대상자를 준비하여 띄울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과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권면하며 참석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기념식에서는 학교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한 이들에 대한 격려와 시상이 이어졌다. 한상화 교수가 30년 근속패를 수여받으며 큰 박수를 받았으며, 학교의 위상을 높인 동문들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런 ACTS 동문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올해의 수상자로는 ▲이정숙 박사(KESA 82, 햇불 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5대 총장) ▲이문기 선교사(신학 91, 태국 코랏제자교회) ▲안재홍 목사(M.Div. 11기, 성령이살아있는교회 담임목사) 3인이 선정되어 그간의 공로와 헌신을 인정받았다.

시상식 이후 참석자들은 교가를 제창하며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고취했고, 이장호 이사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기념촬영 후 참석자들은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륜교회에서 개교기념일을 축하하며 제공한 떡과 점식 식사를 통해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되었다.

한편, 아신대학교(ACTS)는 ‘아시아와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 아래 세워진 선교 중심의 대학으로, 전 세계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문의 전당이다. 개교 52주년을 맞이한 아신대학교는 지나온 은혜의 50년을 발판 삼아, 앞으로 세계로 뻗어 나갈 100년의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숙 박사, 이문기 선교사, 안재홍 목사



정홍열 총장(사회)



개교기념예배 단체사진

13

아신대학교, 양평교육지원청과 함께 ‘양평두물공유학교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운영

— 고등학생 대상 관계·소통 중심 강좌

‘술까말: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도 안 싸우는 법’ 진행 —

Yangpyeong Dumul Shared School



아신대학교가 양평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양평두물공유학교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등학생 대상 강좌인 ‘술까말: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도 안 싸우는 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양평지역 고등학생 1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건강한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관계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의를 맡은 아신대학교 하태선 교수는 “자기 이해 능력 향상을 통하여 자기 표현 기술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부모,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평화로운 관계 형성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강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참여 편의를 고려하여 주로 Zoom을 활용한 원격수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면수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면수업 시간에는 비폭력대화 기반의 대화식 카드게임인 ‘비폭력대화 공감카드 게임 그로그(GROK)’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 표현과 공감의 기술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카드게임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대화 방법을 체험적으로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한 강의식 수업을 넘어 실제적인 의사소통 훈련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참여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교 교과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주제를 경험하며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과 관계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신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14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KAICAM) 발전기금 기탁

2026년 5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 이하 카이캠) 학교 발전기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은 별도로 2026년 ACTS 후원의 밤을 통해 진행되었다.

정홍열 총장은 후원의 밤에 참석한 목회기획국장 고성조 목사와 사무국장 백은석 장로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정 총장은 카이캠에서 학교를 위해 오랫동안 꾸준히 후원해 주신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기탁해 주신 발전기금을 학교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KAICAM

15

거룩한빛광성교회 발전기금 기탁

2026년 2월 10일, 거룩한빛광성교회(곽승현 위임 목사)에서 학교 발전기금 1,000만원을 약정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은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곽승현 위임목사의 축사 후에 진행되었다.

정 총장은 후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학교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Holy Light Gwangseong Church

16

교육혁신센터, 2026-1학기 대학원 독서모임

아신대학교(ACTS) 교육혁신센터는 2026학년도 1학기 동안 운영된 '대학원 독서모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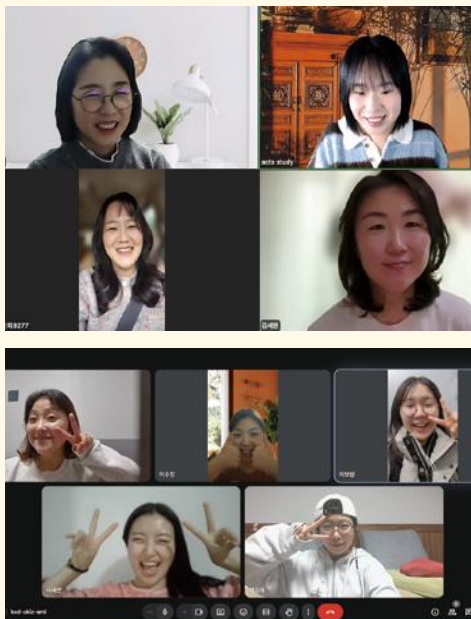
'대학원 독서모임'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팀을 구성하여, 한 학기 동안 주도적으로 독서와 토론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통해 ACTS의 5가지 핵심 역량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다채롭고 깊이 있는 주제의 독서모임 팀들이 활발히 운영되었다. '세겔줄' 독서모임 팀은 『청년에 답하다』, 『5무 교회가 온다』 등의 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하며, 복음 안에서 청년 세대를 깊이 이해하고 공동체적인 사역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열독' 팀은 팀 컬러의 『내가 만든 신』 등의 도서를 읽으며, 현대인의 이상 숭배 문제와 마음의 병을 뇌 과학 및 성경적 관점으로 조망하여 기독교 상담의 전공 전문성을 다졌다.

전공 스터디와 독서를 병행한 팀의 열정도 돋보였다. '임상 스터디 크루' 팀은 임상심리사 2급 필기 및 실기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구성되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심리학 이론과 기출문제를 치열하게 공부하며 상담 전문가로서의 실무 역량을 키워나갔다.

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 학생들은 뜨거운 호응과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교육혁신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와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학우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을 위한 다양한 독서 및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6 First Semester Graduate Reading Group

17

교육혁신센터, 자기주도 팀프로젝트 마무리

Self-Directed Team Project Wrap-Up



아신대학교(ACTS) 교육혁신센터(센터장 전병철 교수)는 2026학년도 1학기 동안 운영된 '자기주도 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자기주도 팀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팀을 구성하여, 한 학기 동안 주도적으로 학습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협업과 소통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ACTS 핵심역량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다양한 주제의 팀 프로젝트가 운영되었다. 독서토론형 프로젝트 팀인 'alt+F4'는 디트리히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신앙 공동체의 본질과 영적 교제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했다. 팀원들은 강독과 토론, 나눔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의 경청과 섬김, 중보기도의 의미를 배우며 신앙적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스터디형 프로젝트 팀인 '네임클로버'는 자격증 준비, 전공 학습, 어학 공부 등 각자의 목표를 설정한 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학습 계획을 실천했다. 참여 학생들은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고 학습 과정을 점검하며 꾸준한 학습 습관과 책임감을 형성해 나갔다.

교육혁신센터는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식을 보완하여, 다음 학기에는 더욱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신대학교 교육혁신센터,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English Box'

한 학기동안 언어 멘토링을 통해 글로벌 소통 능력 및 문화 교류 강화
- 한국인-외국인 학생 간의 국경을 넘은 우정과 배움의 장 마련

아신대학교(ACTS) 교육혁신센터(센터장 전병철 교수)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언어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인 'English Box'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English Box'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인 학생과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소그룹(모둠)을 이뤄 진행하는 아신대학교의 대표적인 글로벌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학기에는 Cole Lasuh, Rufus, Joshua Gonmei Ringchamdin, Richard, Amer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멘토들이 참여하여 실용 문법과 회화 중심의 수업을 이끌었다.

본 프로그램은 단순히 언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하며 국제적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여정 동안 학생들은 대면 수업은 물론 필요에 따라 온라인(ZOOM)을 병행하며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아신대학교 교육혁신센터 관계자는 "English Box는 우리 대학의 강점인 다국적 학생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캠퍼스 내 다문화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혁신센터는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차기 학기에는 더욱 개선된 커리큘럼을 선보일 예정이다.



"English Box" with International Students

서울광염교회 TV 기증

2026년 3월 24일 서울광염교회(조현삼 담임목사)에서 LG 65인치 TV를 기증했다. 기증된 TV는 총학생회실에 비치하여 소그룹 모임 및 회의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총학생회 감사 인사>

서울광염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서울광염교회에서 귀한 TV를 후원해주신 것에 대해 총학생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후원은 단순한 물품 이상의 의미로, 저희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로 세워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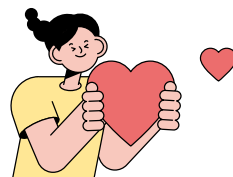
후원해주신 귀한 마음을 잊지 않고, 총학생회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이 TV를 공동체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학우들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를 연결하며, 함께 성장하는 데 잘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내주신 사랑과 섬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성실하게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좋은 열매로 응답하겠습니다.

서울광염교회의 사역과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귀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 드림



TV donation



AIGS MISSION NEWS

상반기

이한영 교수님 은퇴 감사예배

지난 5월 21일(목)에 아신대학교 전구성원이 의미있는 예배를 드렸다. 2000년에 우리 학교 구약학 교수로 부임하여 26년간 은혜와 삶을 나눠준 이한영 교수의 은퇴 감사예배가 있었다.

교수로서 한국 학생들에게도 강의를 통해서 영향을 끼쳤고, 학교에서는 부총장으로서 헌신을 다해 섬겼다. 무엇보다도 우리학교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국제교육원 지도교수, 처장을 거쳐서 원장으로 섬기며 학생들에게 섬김과 헌신, 지혜를 몸으로 보여주었다.

이날 예배에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이 함께 하여 그간의 애씀과 수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방을 섬기며 복음 전달자로서의 소명을 다하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하는 시간이었다.



아신대학교 국제교육원 수원성교회 누가의료선교팀 방문진료 실시

수원성교회(담임 이경희 목사) 누가의료선교팀이 6월 3일 아신대학교 국제교육원을 방문해 진료 봉사를 펼쳤다. 이경희 목사는 본교 법인 이사로 섬기고 있다.

누가의료선교팀은 매년 40~50명의 자원봉사자가 학교를 찾아 국제교육원 학생들에게 치과·한방 진료와 이·미용 봉사,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교육 등을 제공해 왔다.

올해도 이경희 목사를 비롯한 봉사자들이 학생들을 정성껏 진료했으며, 정홍열 총장과 이한영 원장, 이명석 교수가 자리를 함께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료장비를 모두 갖추고 학교까지 찾아오는 일이 쉽지 않음에도, 이날 방문은 고국을 떠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됐다. 선교팀원들 역시 섬김의 기쁨과 보람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2026 아신대학교 AIGS 키워드 뉴스

아신대학교 국제교육원 제37차 Theological Forum 실시

아신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는 지난 4월 28일(화) 제37차 Theological Forum을 실시하였다.

매학기 저명한 강사를 모시고 학술적 강연 및 질의를 통해서 신학의 지평을 넓혀왔다.

이번 Forum은 Jeevan 교수님의 진행과 AIGS 학생들의 찬양 후 Global Ministrie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의 Julius Kim 교수의 'Preaching Christ from all the Scriptures: Why?' 제목으로 강연 진행했다.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고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연을 통해서 학생들은 큰 도전을 받았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질의 응답을 통해서 학생들은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를 마친 후에도 강의 자료를 별도의 요청을 통해서 Julius Kim 교수에게 강의자료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정도로 큰 반향을 가져온 Forum이었고, 향후 진행될 Theological Forum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아신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법령교육 실시

2026년 6월 15일(월) 아신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는 양평경찰서 외사담당과 협조로 한국법령교육을 실시하였다. 본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교육에 임했다.

본국을 떠나 타국에 거주하고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조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매년 시행하는 교육이지만 국제교육원 학생들이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으면서 적극적인 교육에 임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조심하면서 행복한 학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어학당

아신대학교 어학당에 오시면
여러분의 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아신대학교 한국어학당 수료식 진행



2026년 2월 12일, 아신대학교 베트남 어학당 수료식이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총 27명의 수료생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학업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한국어 과정 동안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며 실력을 쌓아왔다.

수료식은 감사의 마음과 기쁨이 함께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교수님들께서는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였다.

특히 타국에서의 노력과 인내에 대한 격려가 큰 감동을 주었다. 학생들은 감사의 박수로 화답하며 서로를 축하했다.

수료증 수여 후에는 모두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진 속에는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밝은 미소가 담겼다.

수료생들은 이제 각자의 전공 과정 진학과 새로운 학업을 준비하게 된다.

아신대학교, 베트남 통일 기념 유학생 교류 행사 성료



아신대학교에서는 지난 4월 30일 베트남 남부 해방 및 통일 기념일을 맞아 베트남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교류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유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며 한국 생활과 학업 경험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함께 한국어 타자 연습을 하며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으며, 베트남 전통 음식인 '분짚느엉 (불고기 비빔국수)'을 함께 나누며 고향의 정을 느끼는 시간도 이어졌다.

또한 학교에서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생활비를 송금하는 방법과 전공 진학 시 필요한 재정 증명 절차에 대해 안내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학생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행사 말미에는 물병과 티셔츠, 가방, 간식 등 기념품이 전달되어 즐거움을 더했다. 고국의 기념일을 타지에서 함께 보내며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Korean Language Institute

아신대학교 한국어학당, 베트남 유학생들 김밥 만들기 한국 문화체험 행사



2026년 4월9일, 본교 한국어학당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밥 만들기를 주제로 기획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직접 재료를 준비하고, 김밥을 말아보며 한국음식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하였다.

활동과정에서는 자연스러운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지며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특히 한국어 수업에서 배운 표현을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이를 통해 베트남 학생들간의 교류와 유대감 또한 한층 강화되었다.

완성된 김밥과 함께 한국식 어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본 프로그램은 언어학습과 문화이해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참가 학생들은 한국 생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다.

한국어학당은 이어 4월 15일 떡볶이와 어묵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이어 갔다.



떡볶이와 어묵을 통해 배우는 한국 문화 아신대학교 한국어학당 이야기



아신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6년 4월 15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와 한국식 어묵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 과정을 하나하나 배우며 한국 음식 문화의 매력을 체험했다. 특히 떡볶이 특유의 매콤달콤한 맛을 조절하며 자신만의 레시피를 완성하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어묵을 끓이고 담아내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일상적인 식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업 시간에 배운 한국어 표현을 실제 상황에서 활용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협력하여 요리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학생들은 완성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

아신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더욱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간소식

좋은 책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달의 신간도서를 소개합니다.



기고자
강상우, 남궁영,
송영목, 양나단,
최성훈, 정형근,
심정연, 손신,
김동명, 유해석

ACTS 신학저널 67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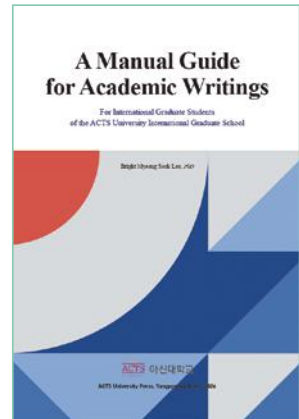
저자
정지웅

통일한국 오디세이



저자
최금순

기독교 상담의 실제 - 초보 상담자를 위한 상담의 흐름과 실제



저자
이명석

A Manual Guide for Academic Writings

ACTS 출판부

해당 도서의 구입을 원하시면
아신대학교 출판부로 연락주세요.
press@acts.ac.kr 031-770-7746



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

(2026년 1월~6월)

ACTS 발전기금 후원계좌

국민은행 220-01-0329-818
(예금주: 아신대학교)



생활관 건축 후원

고미선, 김경진, 김명순, 김재진, 김정호, 김진화, 김현아, 노의수, 류승희, 박영진, 손하영, 송건호, 안태일, 유미정, 윤성덕, 이명기, 조상식, 조지현, 하태선, 홍미란

ACTS 발전기금 후원

(사)한국여성복음봉사단, (유)정술환경, (재)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주)에스피씨테크놀로지, M.Div.24기졸업생일동, 거룩한빛광성교회, 고정환, 과천교회, 권혜령, 김미진, 김선자, 김용환(김경민), 남가주 기쁨의교회, 높은뜻광성교회, 대구칠곡교회, 드림교회, 박경민, 박덕경, 성내안디옥교회, 송건호, 송동윤, 수원성교회, 영세교회, 영암교회, 오름교회, 은누리교회, 우심화, 이명석, 이미경, 이순규, 이한교회, 이한영, 일반대학원영성신학과, 일산한사랑교회, 임태영(조현종), 장옥란, 장정애, 조암제일교회, 평생교육원졸업생일동, 하태선, 향동성광침례교회, 홍지희, 화도교회

각국선교연구원/개척 후원

GFM(Global Fraternal Mission), 갈릴리교회, 강성근, 김신아, 김응상, 대구북성교회, 대흥교회, 덕수교회(경기), 목동중앙교회, 박정순, 봉상교회, 상도중앙교회, 서부교회, 서울네이션즈교회, 세종중부교회, 송전교회, 수영로교회, 수표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우리네교회, 안디옥열방교회, 영락교회제2여전도회, 유기홍, 유라시아선교연구원, 윤정환, 은좌교회, 은혜교회, 이점화, 이혜림, 임마누엘교회, 장예림, 장완익교수후원회, 정영신, 진일교회, 천안반석교회, 한강중앙교회

신학연구소

구미상모교회, 김경천, 남양주충신교회, 이승련,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외국인학생 장학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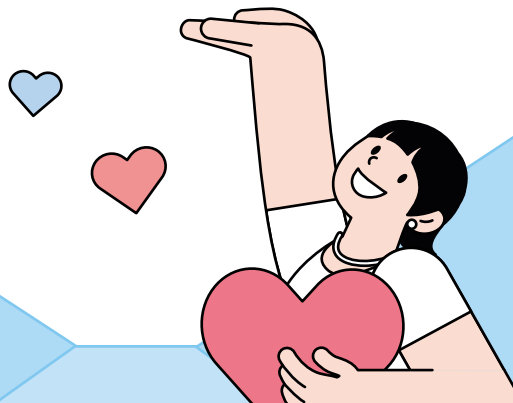
(사)국제민간교류협의회, (사)새로운목회리더십연구원, (사)한국성서유니온, (사)한국여성복음봉사단, (재)비오스국제장학재단, (재)서편담, (재)한국복음선교회, (재)혜송원, (주)소일, (주)예람, (주)태동씨엔애스, Ecclesia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GFM(Global Fraternal Mission), GMI은혜교회, IM선교회, Park Jane, The Global Church(아름다운우리교회), 고효자, 과천교회, 구미상모교회, 김명순, 김형준, 김홍재, 높은뜻광성교회, 더빛교회, 동부광성교회, 루디아선교회, 만방국제학교(합창단), 명업교회, 문호교회, 바실선교회(주안장로교회), 베들레헴교회, 사단법인 누가, 서광교회, 서부교회, 서울노회100주년기념장학재단, 서울영동교회, 선두교회, 성지교회, 수영로교회, 수원성교회, 승리다문화교회, 신은정, 아가페교회, 안산동산교회(GCLM), 안산은누리M센터, 양선영, 열방공동체교회, 영락교회 소망장학회, 예담교회, 예수기념교회, 예수직면교회, 오산제일교회, 은누리교회, 원주제일장로교회, 원주중앙침례교회, 은천교회, 은평교회, 이명석, 이영길, 이용근, 이은옥, 이지향, 이한영, 이효숙, 인천교회, 임식근, 장영광, 재단법인 사랑나무선교재단, 전주현암교회, 정미화, 정영실, 정우철, 정홍열, 정효숙, 조우현, 조휘, 주안교회, 천호제일감리교회, 최미옥, 태연정, 하나선교회, 하진용,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국제자훈련원채플, 한진혁, 할렐루야교회

대학/대학원 장학 후원

(재)백운백합재단, (주)우보프로젝, 구미교회, 권영현, 김경은, 김윤자, 높은뜻광성교회, 무명, 미래를사는교회, 사랑빛·상담소&교육연구소(임신애), 사랑한의원(박수원), 상담대학원원우회, 신대원원우회, 아이빛교회, 안영실, 안해근, 영락교회권사회, 윤만석, 이성수, 전남영, 전예영, 정지웅,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90학번 아세아학과, 신학과 동문, 02학번 이사아, 안경승, 요셉국제학교

ACTS 10만명기도·후원운동

강갑구, 강성경, 경기도교육청등록대안교육기관리스크, 고지은, 김기천, 김동일, 김동현, 김병준, 김용환(김경민), 김정미, 김종일, 김종숙, 김지원, 노의수, 박영기, 박영숙, 박우영, 박지현, 박홍구, 백영진, 백승하, 손신, 손영복, 손하영, 송건호, 송안현, 심재학, 안경숙, 양예진, 오하경, 위현숙, 유서원, 유용석, 육상근, 윤성덕, 이광직, 이우형, 이정순, 장영민, 장지옥, 정미현, 정영일, 정홍열, 제자교회, 조형우, 조휘, 채광석, 채봉준, 천재옥, 천지혁, 최관능, 최동욱, 표영선, 허주, 홍성장, 황선미, 황순희



Thanksgiving Service for the Retirement of Professor Han-Young Lee



On Thursday, May 21, the entire ACTS University community gathered for a meaningful worship service. The service was held in thanksgiving for the retirement of Professor Han-Young Lee, who joined the university in the year 2000 as a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has shared grace and life with the university community for the past 26 years.

Through his teaching, Professor Le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Korean students. He also served the university with wholehearted dedication as Vice President. Above all, he devoted himself to the international students at the university. After serving as faculty adviser and dean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he went on to serve as its director, embodying service, dedication, and wisdom before the students.

Students, faculty, and staff attended the service together and expressed their gratitude for his many years of dedication and hard work.

The service was also a time to encourage and bless Professor Lee, with the hope that even after retirement, he will continue to follow God's calling, serve the nations, and faithfully fulfill his mission as a messenger of the gospel.



ENGLISH SUMMARY

ACTS Univers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Hosts Medical Outreach Visit by Suwonseong Church's Luke Medical Mission Team

On Wednesday, June 3, 2026, the Luke Medical Mission Team from Suwonseong Church visited ACTS University and provided on-campus medical and wellness services. Suwonseong Church is led by Senior Pastor Lee Kyung-hee, who also serves as a member of the university foundation's Board of Trustees.

Each year, a team of approximately 40 to 50 volunteers from the church visits the university to serve students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Their services include dental care, traditional Korean medical treatment, hair and beauty services, and training i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the Heimlich maneuver.

This year, Senior Pastor Lee and many other volunteers once again visited the university and cared for the students with warmth, love, and encouragement. President Jeong Hong-yeol, Director Lee Han-young, and Professor Lee Myung-seok also attended and expressed their sincere gratitude for the team's valuable service. Along with receiving various forms of care, the students experienced the mission team members' heartfelt encouragement and kindness.

Bringing all the necessary medical equipment to the university and providing on-site services is no easy task. Nevertheless, the team's visit offered great strength and encouragement to students studying far from their home countries. For the members of the Luke Medical Mission Team, it was also a meaningful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joy and fulfillment of serving others.



ACTS Univers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Hosts the 37th Theological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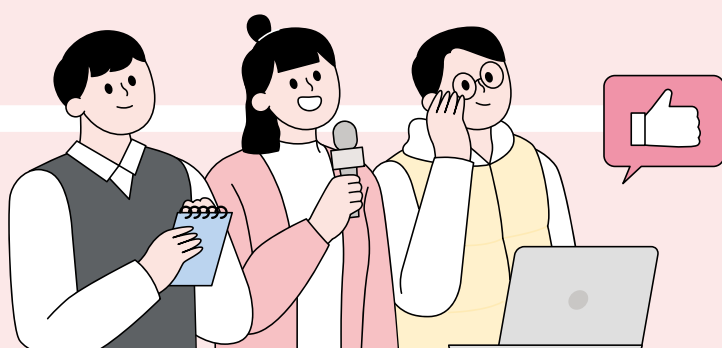
On Tuesday, April 28, the ACTS Univers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hosted its 37th Theological Forum.

Each semester, the forum invites distinguished scholars to broaden students' theological perspectives through academic lectures and question-and-answer sessions.

This year's forum was moderated by Professor Jeevan and began with a time of praise led by AIGS students. Professor Julius Kim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s Global Ministries then delivered a lecture titled "Preaching Christ from All the Scriptures: Why?"

The lecture gave students a broader understanding of how to read the Bible with Jesus Christ at its center. Professor Kim's passionate presentation also challenged and inspired the students. During the question-and-answer session, which continued until late in the evening, students had the opportunity to explore their questions and deepen their understanding.

The forum received such a positive response that, even after the lecture, several students separately requested Professor Kim's lecture materials. The event also increased anticipation for future Theological Forums.



Evangelization of
Asia and the World

ACTS Univers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Conducts Korean Law and Regulations Training

On Monday, June 15, 2026, the ACTS Univers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conducted a training session on Korean laws and regulations in cooperation with the foreign affairs officer from Yangpyeong Police Station. Many students, including those residing in the university dormitory, participated in the session.

Through specific real-life examples, students learned about various challenges they may encounter while living away from their home countries, as well as important precautions to observe while residing in Korea. Although this training is held annually, the students actively participated by asking questions about particular situations and receiving practical guidance.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plans to continue providing such training so that students can prepare for potential difficulties, exercise appropriate caution, and enjoy a safe and fulfilling academic life in Korea.



2027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 안내

모집학과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사회복지선교학과

접수기간

수시

2026년 9월 7일(월) - 11일(금)

정시

2027년 1월 4일(월) - 7일(목)

문의

☎ 031-770-7701

아신대학교
입학안내



2027학년도 순수외국인 신입학 특별모집

종교문화콘텐츠학과(한국어과정·영어과정)

■ 장학혜택

- 1학기 등록금 62.5% 면제
- 2학기 등록금 50% 면제
- 3학기부터 성적에 따라 등록금 최대 100% 면제

■ 입학요건

• 한국어과정

TOPIK 2급 이상
(졸업 전 4급 이상)

• 영어과정

TOEFL(iBT) 71
IELTS 5.5 이상

K-컬처

- 한국학/한국어
- 마케팅/콘텐츠 기획
- 뷰티 아티스트(메이크업/네일/피부)

K-돌봄

- 사회복지
- 요양보호사

K-종교

- 종교/문화 전문가
- 인문학/교양

문의

✉ admission@acts.ac.kr ☎ 031-770-7702

아신대학교
종교문화콘텐츠학과



아신대학교(ACTS) 대학원 온라인 학위과정 안내

■ 아신대학교(ACTS) 대학원 온라인 학위과정



■ 현직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시장학급 지급

- 선교대학원(수업료의 50%)
- 일반대학원 및 신학대학원(수업료의 30%)

■ 2027학년도 전기 신입학 원서접수

2026. 11. 2.(월)~11. 9.(월) 예정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학문의

대학원 교학지원팀 ☎ 031-770-7796

아신대학교 대학원
입학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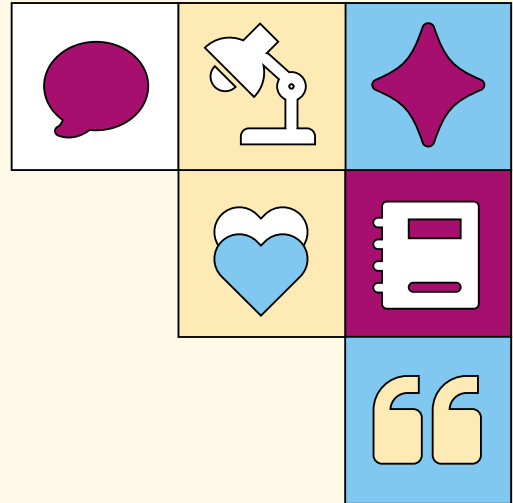
은혜의 50년을 넘어, 세계를 향한 100년의 부르심 속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아신대, 그 부르심의 길 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74년, '아세아 복음화'라는 거룩한 소명을 품고 설립된 아신대학교(ACTS)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이끌 지도자를 양성해 왔습니다. 2024년 회년을 기점으로, ACTS는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과 세계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준비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 ACTS NEWS

Evangelization
of Asia and
the World



함께하는 학교법인이사 목회자 소개

- 이장호 목사(이사장) 공동체성경읽기운동 대표
- 김운성 목사(이사) 영락교회
- 박노훈 목사(이사) 신촌성결교회
- 박장혁 목사(이사) 인천 드림교회
- 이건호 목사(이사) 순복음대구교회
- 이경희 목사(이사) 수원성교회
- 이기용 목사(이사) 신길교회
- 이인호 목사(이사) 더사랑의교회
- 이재훈 목사(이사) 온누리교회
- 최병락 목사(이사) 강남중앙침례교회
- 최원준 목사(이사) 안양제일교회
- 황성은 목사(이사) 창동염광교회

